

20191116 치매 케어의 혁신

# 케어 ‘현장의 소리’ 지정토론

김 춘 길

한림대학교 간호대학

# 들어가면서



- ▶ 치매 케어에서 중요한 것: 좋은 케어
- ▶ 치매질환의 특성상 케어의 어려움이 큼
- ▶ 케어 현장에서 좋은 케어를 실시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 좋은 케어의 수행과 유지는 쉽지 않음
- ▶ 현장의 좋은 케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

# ■ 금일 케어 현장의 소리와 관련하여

- ▶ 치매 케어 현장인 요양시설, 방문요양, 주간보호센터의 케어 실체가 제시됨

## I. 요양시설

- ▶ 치매질환의 특성상 전문화된 장기요양서비스제도 필요성, 이용자, 시설기준, 급여, 장단점 등 제시
  - ⇒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의 확대 시급
  - ⇒ 장점 강화: 케어 질 향상 (시설장, 요양보호사, 프로그램 관리자의 치매전문교육 필수; 요양보호사 및 가족의 만족도↑ 등)
  - ⇒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: 현장에서의 대안, 연구, 정책마련 등



## II. 방문요양

- ▶ 요양보호사의 단독 케어↑, 가사중심, 건강관리서비스↓, 다양한 서비스 제공↑ 등 제시
- ⇒ 통합재가서비스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(사례관리) 실시
- ⇒ 필수인력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;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
  - 사례관리 양식 등 매뉴얼 등: 접수·계획·실천·평가 단계 포함, 쉬운 설명으로 실용적 사용 ↑



### III. 주간보호센터

- ▶ 치매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힘, 능력 및 독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곳
- ▶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: 치매수급자의 신체•인지기능 유지•개선을 위함 제시
- ▶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기능상태, 특성 등 고려 제시됨
- ⇒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역량있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영입과 운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
- ⇒ 이용자의 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 보다 필요: 송영차량 등

## <주간보호센터 계속>

- ▶ 인천시의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향후 운영방향으로 제시된 **Humanitude**는?
- ▶ 이번 <치매 케어의 혁신>의 컨퍼런스에서 강조된 **사람중심의 케어의 일 실천방안**
- ▶ Humanitude에서 강조되는 케어에서의 4가지 기법은 치매환자 케어에서 널리 적용되어야 할 것임
- ▶ 기법(4): **보고, 말하고, 만지고, 서고**



# 나가면서: 삶을 바라보는 마음



인종이 『열반경』을 강의하던 그 자리에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. 혜능은 그 수업에 참여하여 인종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.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꼈다.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<바람이 흔들린다, 깃발이 흔들린다.>로 의견이 분분하였다. 혜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. “이는 대중의 망념이 흔들리느냐, 안 흔들리느냐일 따름이다.”

<출처: 달마와 그 제자들-이야기 선불교사, 2008. 살림출판사>

- ▶ **마음은 흔들린다. 그러나 신념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.**  
- **치매 케어에서 혁신: 걸림돌을 디딤돌로!!-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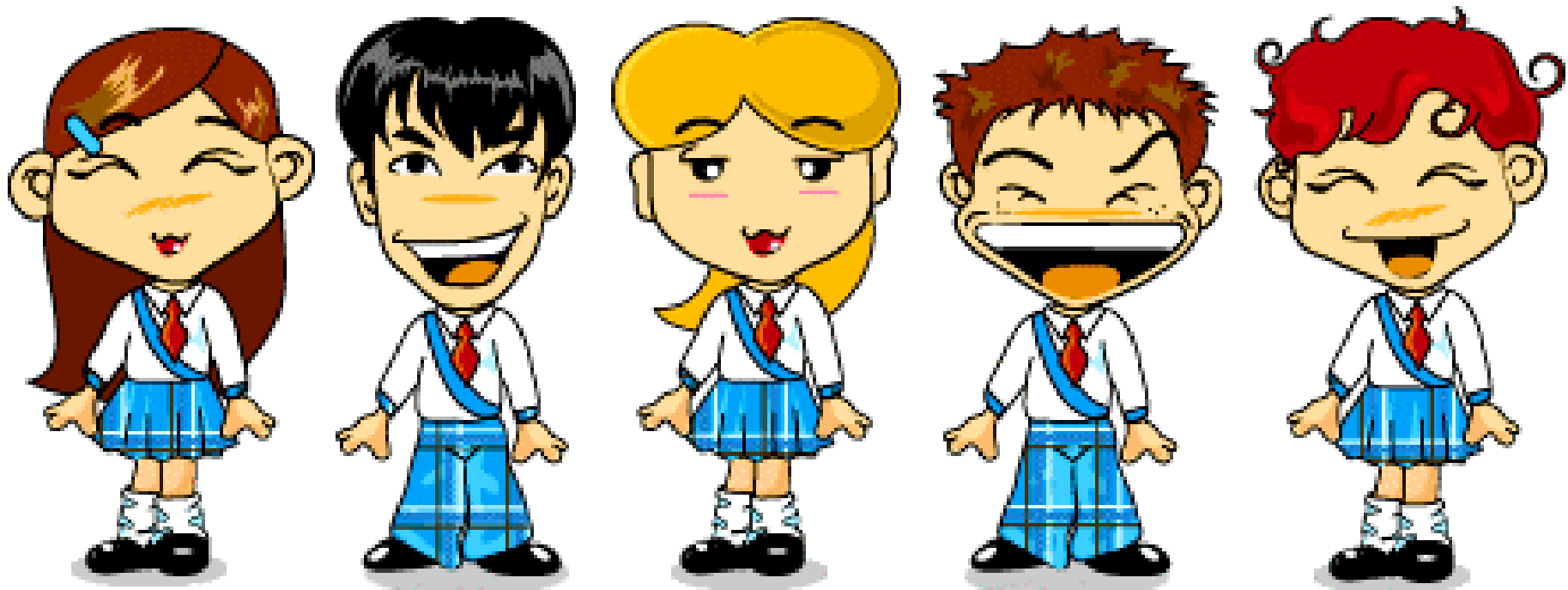
#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케어로 !!



-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
- 노인은 나의 미래







김춘길 (kimcgg@hallym.ac.kr)